

SUV도 하이브리드…현대차·기아, 1분기 실적 이끌었다

SUV 국내 판매 15만492대 중 하이브리드 5만9386대…39.5% 차지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구매 비중 77%…디젤 대체 ‘가성비’로 인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의 영업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매 고객 10명 중 4명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는데,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서 팔린 현대차·기아의 SUV는 총 15만492대로,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5만9386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 실적은 국내외를 합산해 현대 116만7480대·기아 77만 2648대였다.

전체 SUV 판매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였다. SUV 구매 고객 10명 중 4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SUV보다 높은 가격 부담에도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트렌드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따라 인기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하이브리드 SUV 판매량은 2022년 11만7499대에서 지난해 24만4776대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커졌다.

하이브리드 SUV 인기는 현대차에서 더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기아에 비해 SUV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았던 현대차는 2022년 2만6250대였던 하이브리드 SUV 판매량이 지난해 9만2290대로 3.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SUV 모델 비중도 2022년 12.3%, 2023년 24.5%, 지난해 37.6%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차는 싼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강세가 돋보였다.

싼타페는 2022년 하이브리드 구매 비중 47%에서 2023년 58%, 2024년 72%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77%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SUV가 인기 차량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기존 SUV 주류였던 디젤 모델의 단종이 크다 분석이다. 차량이 큰 데다 ‘가성비’로 연비를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하이브리드가 디젤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 기조와 친환경 정책 등도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1분기 친환경차 판매 비율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21만 2426대, 기아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만 4000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캐즘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는 것도 인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올해 1월 출시된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의 경우 누적 계약 고객 중 67%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1분기 경영 실적은 매크로(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형 시장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 확대 추세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폭스바겐 ID.5.

〈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폭스바겐 돌풍 잇는다…쿠페형 전기 ID.5 인도

특별 보조금 200만원 추가 제공

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구매 혜택 등을 더해 4000만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쿠페형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5’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ID.5 출고 고객에게 200만원 상당의 특별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고가가 6000만원 초반대인 ID.5를 국고 보조

ID.5는 폭스바겐이 2022년 출시한 ID.4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전기차다.

ID.4는 국내 재고가 조기 소진돼 긴급 추가 입고가 예정된 상태다. 국내 입항·출고는 다음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의선 “EV3 올해의 차 수상…세계가 혁신DNA 인정”

임직원에게 격려 서신…“완성차·영업 등 전 그룹사 협업 결과”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아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하며 임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5일 사내 업무망을 통해 올린 글에서 EV3 등 기아의 ‘세계 올해의 차’ 2년 연속 수상과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선정을 축하하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V3는 이달 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2년 연속 어워즈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6년간 5차례에 걸쳐 ‘세계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고, 전기차

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값진 결실은 상품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 구매, 생산, 품질, 영업 등 완성차 전 부문과 철강, 물류, 금융 등 전 그룹사가 상호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그는 기아의 수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 회장은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이는 단순한 영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1944년 자전자 부품으로 시작한 이래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반열에 오르기까지 쉽지는 혁



신 역사를 써온 기아의 DNA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아 고유의 ‘도전과 분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혁신으로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세계 시

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대차그룹 전 임직원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점은 아니다. ‘그레이트 벳 그레이터(Great but Greater)’,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 더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독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기아,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진행

호남·충남권 7월 3~17일 모집

현대자동차·기아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2025 히어 위 고(Here We Go)’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히어 위고는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인재들에게 자동차 전문 직무 교육과 우수 협력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력이 필요한 협력사에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재

들 1대1 매칭해 인재 채용까지 돕는다.

대상은 현대차·기아의 우수 협력사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지난해 참여했던 협력사와 교육생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교육 선발 인원을 80명에서 160명으로 2배나 늘리고 권역별 총 3차수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영남권은 지난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중 60명을 선발해 경북 경주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4주

간 교육을 진행한다. 수도권도 영남권과 같은 기간 교육생을 모집한 뒤 70명을 선발해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

충청·호남권은 7월 3~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후 30명을 선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교육한다.

교육 수료 청년들은 교육 이수금을 받고 3개월 동안 우수 협력사에서 인턴ships을 경험할 수 있다. 인턴십 결과가 우수한 수료자는 해당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DH오토웨어, 전방 노면 감지 제어 시스템 성능 검토

자율주행 기술 안전도 향상 기대

광주와 평택 등에 공장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장치 전문 기업 DH오토웨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전방 노면 감지 차량 제어 시스템 AI칩 성능 검토 단계에 돌입해 국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도와 신뢰도 향상 등이 기대된다.

28일 DH오토웨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 중 하나인 ‘AI 적용 전방 도로 노면 감지 세시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 총 107억원 규모로 HL만도, 인하대학교 등과 공동 연구 중이며, 1차 연도 과제를 무난히 통과했다.

국내 광주, 평택 등에 공장이 있는 DH오토웨어는 현재 엔비디아(NVIDIA), 퀄컴(Qualcomm) 등 다양한 고성능 칩셋을 대상으로 성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작되는 2차 연도 과제에는 실질적인 제품 설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개발 항목은 노면 감지 요구 사항 분석 기반 임베디드 AI 제어기 플랫폼 시제품 설계, 카메라·센서 인터페이스 설계, 기구 구상·상세 설계, 플랫폼 회로 이온 검증 등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제어용 경량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세시 통합 제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